

# 주간 해외에너지정책 동향

Issue 33 / 2010.8.20

## □ 중국, 에너지 확보 위해 50개국 이상 투자

- 중국이 원유와 천연가스의 확보를 위해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50개국 이상에서 투자와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중국은 '08년에 56%의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였으며 주요 수입국별 의존도는 사우디아라비아 20%, 앙골라 17%, 이란 12%, 오만 8%, 러시아 7%, 수단 6%, 베네수엘라 4%임.
- 중국의 석유 수입의존도는 '15년까지 67%, '30년까지 8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증대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유전지역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음.
- 한편, 중국은 페르시아灣과 아프리카 등에서 수입한 원유의 80%가 통과하는 말라카 해협 등의 해상수송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육상수송 루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06년에 가동되기 시작한 카자흐스탄의 아타스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두산쯔까지 이어지는 카자흐스탄-중국 파이프라인은 하루 800천 배럴까지 수송능력을 확대할 계획임.
-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중국 원유 수입량의 비중이 현재 40%에서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중국의 육상 파이프라인 건설이 완성되어도 전략적인 해상수송로는 필요하게 될 것임.

(MSN産經News, 2010.8.18)

### NEWS

- 중국, 에너지 확보 위해 50개국 이상 투자
- 일본, 저탄소에너지 도입을 위해 에너지회사에 공정표 제출 요청
- 오사카가스, 해외 가스 공급 사업 참가 검토
- 일본 요코하마시, 경산성에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계획 제출
- JOGMEC, KPC와 협력 양해각서 체결
- INPEX, 아제르바이잔 카스피해 ACG 광구 지분을 추가 확보
- 중국, 상반기 석유 대외의존도 55.14%
- 중국, 신장에 향후 10년내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기지 건설
- 호주, Carbon Farming Initiative 발표
- Marubeni와 Cargill, 온실가스 감축사업 협력
- 미국, CO<sub>2</sub> 지하저장 프로젝트 선정
- 미국, 재생에너지부문 제조업 대상 대출보증 계획 발표
- 캐나다-멕시코-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모니터링 구축 논의
- 아르헨티나, 천연가스 부족 사태 대비 해외자본 유치
- 우루과이-파라과이-볼리비아, 에너지부문 상호통합 강조
- 콜롬비아와 칠레, 바이오연료 사용 증가 예상
- 이란, 첫 원자로 가동 준비 중
- 폴란드, 상반기 화력발전량 2.5% 증가
- 폴란드, 한국과 원자력 협정에 서명
- 프랑스, 1990~07년 CO<sub>2</sub> 배출량 감축 실패
- 프랑스, '14년까지 재생에너지 기술에 1.35십억 유로 지원
- 독일, 화력발전용 석탄에 과세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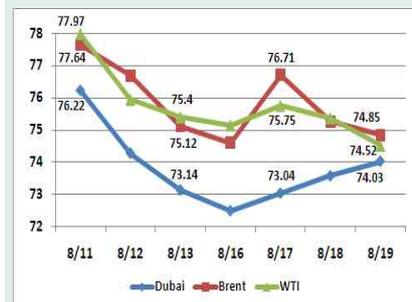
### ANALYSIS

- 미국, 비용효율적인 CCS 보급 방안 발표
- 세계 우리들 시장 불안정성 상존

### REPORT

- 부진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세계 석유수요 증가세 지속

Oil Prices (Spot, \$/bbl)





## ASIA, AMERICA & MIDDLE EAST

### □ 일본, 저탄소에너지 도입을 위해 에너지회사에 공정표 제출 요청

- 일본 경제산업성은 8월 12일에 개최된 동 성의 자문기관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회의에서 전력, 가스, 석유업계 각 사에 저탄소에너지 도입을 위한 공정표(工程表) 작성을 요청하기로 함.
  -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제로에미션 발전원의 비율을 현재의 34%에서 '30년까지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임.
- 경산성은 지난해 7월에 수립된 에너지 공급구조 고도화법을 바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한 민간기업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장관의 권고, 명령으로 시정을 촉구할 예정임. 또한 9월에는 민간 부문의 노력을 평가하는 국가의 기준을 공포할 예정임.

(日本經濟新聞, 2010.8.12)

### □ 오사카가스, 해외 가스 공급 사업 참가 검토

- 오사카(大阪)가스가 '13년까지 해외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참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움.
  - 이는 일본 내의 에너지수요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데다 전력회사와의 경쟁이 격화되었기 때문임. 이에 동 사는 지역 가스 공급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포함한 경영 기반의 강화를 도모함.
- 오사카가스는 1990년에 일본의 전력·가스 사업자 최초로 인도네시아의 LNG 지분을 확보하는 등 해외로 활로를 넓혀왔으며, 이번 해외 가스 공급 사업도 단계적으로 규모를 늘릴 계획임.
  - 이미 이탈리아와 독일 등 유럽의 회사들이 해외에서 가스 공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도쿄가스가 말레이시아 기업에 출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오사카가스는 7월, 간사이(關西)전력과 공동으로 UAE에서 계획 중인 화



력발전소 사업에 응찰했음.

(讀賣新聞, 2010.8.17)

## □ 일본 요코하마市, 경산성에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계획 제출

- 요코하마(横浜)市는 8월 11일, 차세대 에너지사회시스템 실증 지역으로 선정되었음. 이에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8월 17일 경제산업성에 제출함.
  - 차세대 에너지사회시스템 실증은 성장 전략인 “그린 이노베이션에 의한 환경·에너지 대국 전략”에서 일본형 스마트그리드 구축과 해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의 일환임.
  - 요코하마市를 비롯하여 차세대 에너지사회시스템 실증 지역으로 선정된 도요타(豊田)市, 게이한나 학연도시(교토), 기타큐슈(北九州)市の 대표도 참석하여 각각 나오시마 경산성 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했음.
- 요코하마市는 금년 11월 APEC 개최지인 미나토 미라이21 지역에 차세대 스마트 하우스와 전기자동차를 전시할 예정이며, '14년까지 약 64천 톤의 CO<sub>2</sub> 배출량을 줄이고 약 2천 대의 전기자동차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 계획 기간은 금년부터 '14년까지 5년간임.

(横浜經濟新聞, 2010.8.17)

## □ JOGMEC, KPC와 협력 양해각서 체결

- JOGMEC는 7월 19일 쿠웨이트석유공사(Kuwait Petroleum Corporation, KPC)와 CO<sub>2</sub>를 활용한 원유 회수율 향상 기술(CO<sub>2</sub>EOR)을 중심으로 한 선진적인 석유·천연가스의 개발 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음.
  - 동 양해각서는 '08년 7월, 쿠웨이트 총리가 일본을 공식 방문했을 때 발표된 상류부문을 비롯한 석유부문 기술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성명에서 비롯된 것임.
  - 그 첫 단계가 CO<sub>2</sub>EOR에 관한 공동연구 프로젝트로 KPC와 JOGMEC



이 협상을 진행하여 동 양해각서를 체결함. 향후 동 양해각서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 쿠웨이트는 세계 4위의 석유매장량을 자랑하는 중요한 산유국이며 일본 원유수입량의 약 8%('08년)를 점유하고 있음.
- JOGMEC은 동 양해각서에 따라 일본의 CO<sub>2</sub>EOR 기술을 발전시키고, 쿠웨이트의 유전 개발에 공헌하여 쿠웨이트에서의 일본 석유개발사업 전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음.

(日本經濟新聞, 2010.8.16)

#### □ INPEX, 아제르바이잔 카스피해 ACG 광구 지분을 추가 확보

- 일본의 International Petroleum Exploration은 자회사를 통해 아제르바이잔 카스피해의 ACG 광구에서 ACG 유전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동 사는 동 광구에서 철수하는 미국의 Devon Energy의 프로젝트회사 지분 일부를 추가 확보함.
- 이번 Devon Energy의 지분양도 결과 ACG 광구 보유 지분 비율은 BP가 37.43%, 쉘브론 11.27%, 동 사 10.96%,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회사(SOCAR) 10%, Statoil(노르웨이) 8.56%, 엑슨 모빌 8.00%, TPAO(터키 국영석유회사) 6.75%, 이토추 상사 4.30%, Amerada Hess(미국) 2.72%임.
- 동 사는 ACG 지분이 안정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프로젝트이며, 매장량 및 생산량 확보의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경영전략에 부합하여 지분을 추가 취득하였음. 또한 동 사는 ACG 광구 외에 카자흐스탄의 북부 카스피해 연안 광구의 개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음.

(日本經濟新聞, 2010.8.17)

#### □ 중국, 상반기 석유 대외의존도 55.14%

- 중국 석유화학산업연합회 회장은 금년 상반기 석유수요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중국의 석유 대외의존도는 55.14%까지 증가했다고 밝힘.
- 중국 석유화학산업연합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1~6월 중국의 석유소비



량은 220백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5.1%가 증가하였고, 대외의존도는 전년 동기보다 4.2% 높은 55.14%로 확대되었음.

- 원유소비량은 215백만 톤이며 전년 동기대비 18.64% 증가하였고, 대외의존도는 전년 동기보다 5.7% 상승한 54.26%를 기록함.
- 또한 금년 상반기 석유와 천연가스의 중국 생산량은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기록하였음.
  - 상반기 중국의 원유생산량은 약 98.5백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하였음.
  - 천연가스생산량은 45.93십억<sup>m</sup>으로, 전년 동기대비 10.8% 증가하였음.
  - 원유 정제량은 206백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7.9%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北京商報, 2010.8.11)

## □ 중국, 신장에 향후 10년내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기지 건설

-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카라마이市에서 8월 11~13일에 걸쳐 개최된 “제1회 카라마이 정보화혁신 국제학술포럼”에 참석한 PetroChina의 Wang Yilin(王宜林) 부총경리는 향후 10년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중국 최대의 석유·천연가스 생산기지, 중요 석유정제·화학공업기지, 석유 비축기지, 엔지니어링 서비스 지원기지를 건설하여 해외 석유·천연가스 자원의 도입과 활용을 위한 중요한 루트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힘.
  - Wang Yilin 부총경리에 따르면, PetroChina는 향후 투자와 정책의 지원강화를 통해, 신장의 석유·천연가스 생산량을 연간 20백만 톤으로 확대시키고, 카라마이市의 석유 정제시설 규모를 연간 10백만 톤으로 증대시킬 예정임.
  - 또한 동 지역의 두산쯔(獨山子)에서는 연간 10백만 톤의 석유제품과 1백만 톤의 에틸렌 생산을 도모함.
- 신장지역은 그동안 중국의 석유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으며, PetroChina의 지난 30년간 신장 투자액은 300십억 위안 이상임. 연간 생



산능력은 원유가 18백만 톤, 천연가스가 23십억<sup>m</sup><sub>3</sub>, 원유정제가 20백만 톤, 에틸렌이 1.2백만 톤임.

- 신장은 '09년 말 현재, 석유 3십억 톤, 천연가스 1조 300십억<sup>m</sup><sub>3</sub>의 매장량이 확인되고 있음.

(朝日新聞, 2010.8.16)

## □ 호주, Carbon Farming Initiative 발표

- 줄리아 길러드 호주 총리는 탄소 배출량 감축사업의 실적에 따라 농부 및 토지소유주가 탄소 크레딧을 부여받고 이를 국내외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Carbon Farming Initiative를 8월 14일 발표함.
  - 이를 통해 농부 및 토지소유주들에게는 새로운 수입원이 창출되고, 환경오염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됨.
- 농업과 임업부문의 CO<sub>2</sub> 배출량은 호주 전체 배출량의 23%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농부, 삼림업자, 토지소유주가 탄소 크레딧을 부여받고 판매할 수 있는 일정한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음.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호주의 CO<sub>2</sub> 배출량 감축에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업과의 합의 하에 농부들은 생산성이 낮은 농장에 일정 구역을 지정해 나무를 심을 수 있음. 시간이 경과되어 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 만큼 나무가 자라게 되면 농부들은 탄소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이를 국내외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음.
  - 탄소 크레딧은 제한 없이 부여하며, 그 규모가 향후 10년에 걸쳐 적어도 A\$500백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조림사업을 주축으로, 축산, 비료 및 분뇨 사용, 야생산불, 산림황폐화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11년 12월까지 승인될 계획임.
- 동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호주 정부는 Climate Change Research Program 하에서 이뤄진 A\$20백만 규모의 토양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Australian Labor Party, 2010.8.14)



## □ Marubeni와 Cargill, 온실가스 감축사업 협력

- 무역회사인 일본의 Marubeni와 미국의 Cargill은 탄소 배출권 사업과 관련한 협력협정에 서명함.
  - 양사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전반적인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협력협정에 서명했다고 8월 17일 발표함.
  - Marubeni는 포스트 교토체제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별채 및 산림훼손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재생에너지 활용사업이라고 언급함.
- 일본정부는 선진국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양자간 사업의 시작을 위해 허가한 첫 번째 사업 명단을 지난주에 공개함.
  - Marubeni와 Tokyo Electric Power는 지난 주 발표된 사업 중 하나인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해 협력할 예정임.
  - 양사가 베트남에 건설할 본 사업은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비해 매년 500천 톤의 CO<sub>2</sub>를 저감할 것으로 기대됨.
  - Marubeni와 Cargill의 협력사업이 이번에 선정된 양자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음.

(Point Carbon, 2010.8.17)

## □ 미국, CO<sub>2</sub> 지하저장 프로젝트 선정

- Steven Chu 미국 에너지부(DOE) 장관은 지하에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CO<sub>2</sub>를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15개를 선정하고, 향후 3년 간 \$21.3백만을 지원할 계획임을 8월 11일 발표함.
  - 동 계획은 미국 전역의 다양한 지층에 대규모로 CO<sub>2</sub>를 저장하는 기술 및 인프라의 개발을 지원하는 DOE 이니셔티브의 일환임.
  - 15개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석탄이용기술을 개발 및 보급하며,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서 미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확고히 하고자 함.
  - Steven Chu 장관은 동 프로젝트들을 실행함으로써 청정에너지 혁신을



일으키고 미국 전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현재 CO<sub>2</sub> 지하격리의 안전성 및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Regional Carbon Sequestration Partnerships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동 프로젝트들은 지하 저장공간에 CO<sub>2</sub> 주입, Plume Migration, 덮개암이나 다른 메커니즘을 통한 봉쇄 등의 기술을 개발 및 시험할 계획임.
- 현재 CO<sub>2</sub> 지층저장은 폐유정 및 폐가스전, 심부암염층, 채굴이 곤란한 석탄층, 석유 및 가스가 풍부한 유기질 셰일, 현무암의 5개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폐유정 및 폐가스전에 CO<sub>2</sub>를 저장하면 석유나 가스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심부암염층에 CO<sub>2</sub>를 저장하면 수천 기가톤의 CO<sub>2</sub>를 전 세계적으로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DOE, 2010.8.11)

## □ 미국, 재생에너지부문 제조업 대상 대출보증 계획 발표

- Steven Chu 미국 에너지부(DOE) 장관은 재생에너지부문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대출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8월 12일 입찰을 공고함.
  - 공식명칭 “Commercial Technology Manufacturing Systems and Components”인 동 입찰은 Energy Policy Act of 2005의 제 1705항 “대출보증 프로그램”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고 재생에너지 제조업부문의 고용을 증대하는 것이 목표임.
- 입찰신청 가능 프로젝트는 에너지저장 시스템, 풍력터빈 및 날, 태양광 부품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사업임.
- DOE는 최근 들어 효율적인 대출보증 입찰과정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입찰기업의 신청자격, 평가과정, 일정, 비용과 관련한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제조업부문 입찰을 고안했음.
  - 또한, 신청기업은 금번에 새로 선보이는 사용자 친화적인 온라인 지원 사이트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DOE는 약 \$750백만을 대출보증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임.

(DOE, 2010.8.12)

## □ 캐나다-멕시코-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모니터링 구축 논의

- 캐나다, 멕시코, 미국으로 이루어진 환경협력위원회인 CEC(Commiss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는 8월 17일 멕시코 과나후아또(Guanajuato)에서 열린 제17차 연례 회의에서 '1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

※ CEC: 1994년부터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지역적 환경문제 특히 북미대륙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운영해온 위원회임.

- 상기 세 국가들은 향후 '15년까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및 보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에 대한 Inventory를 구축하기로 약속함.
- Jim Prentice 캐나다 환경부 장관은 온실가스 측정 및 보고에 대한 일반적 기준이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함.
- CEC는 비교 가능한 온실가스 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Pediatric Environmental Health Specialty Units(PEHSU)를 지원하며, 전자제품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단속하는 데 주력할 계획임.

(Point Carbon, 2010.8.17; CEC.org, 2010.8.17)

## □ 아르헨티나, 천연가스 부족 사태 대비 해외자본 유치

- 아르헨티나는 심각한 천연가스 부족에 직면하고 있음. 정부는 산업부문 소비자들의 가스 소비를 제한하고,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가스 공급회사들을 관리하고 있음.
- 7월 말에 아르헨티나의 가스산업 규제기관인 Enargas는 가스 공급사가 요구한 양보다 적은 140백만ft<sup>3</sup>/d의 가스를 제공하였음.
- 천연가스 부족 사태의 원인은 '03년 정부의 가스 가격 규제 결정으로 거슬러 올라감. 가스 가격 규제는 가스 소비를 촉진시켰지만 새로운 상



류 부문에 대한 투자를 하려는 생산자에게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여 에너지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음.

- 가스 공급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아르헨티나는 LNG를 수입하기 위한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는 '10년 14개의 LNG 카고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 및 LNG 수입 설비 능력 증대를 포함한 일부 인프라구축 프로젝트들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
  - 스페인 Repsol YPF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근처에 아르헨티나의 두 번째 LNG 수입 설비를 건설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 국영에너지기업 Enarsa는 '13년까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Montevideo)에 건설될 새로운 LNG 터미널로부터 연간 1.8십억m<sup>3</sup>의 가스를 수입하기를 기대함.
  - 아르헨티나 남단 띠에라 델 푸에고(Tierra del Fuego) 지방 근처에 위치한 까리나(Carina)와 아리에스(Aries) 해상가스전의 가스 파이프라인 가동 개시로 인하여 가스 공급이 증가할 것임.
- 그러나 정부는 자국의 가스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난 6월에는 32개의 새로운 재생에너지 전력 프로젝트를 승인하였으며, 향후 수년간 895MW의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건설할 예정임.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2010.8.16)

## □ 우루과이-파라과이-볼리비아, 에너지 부문 상호통합 강조

- 남미의 소규모 국가인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연합기구(Urupabol)의 정상들은 8월 15일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Asunción) 회의에서 세 국가의 에너지 부문 통합 및 상호협력 강화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였음. 특히 세 국가를 잇는 가스관 건설 및 상호 전력 판매와 같은 프로젝트를 진전시킬 계획임.

※ Urupabol: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세 국가로 이루어진 상호협력기구로 1963년에 창설되었으나,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해 다년간 활동이 중단되었음.



이후 '09년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에 의해 활동이 재개됨.

- 세 국가를 잇는 가스관은 볼리비아 따리하(Tarija)에서 시작하여 파라과이를 지나 우루과이 몬테비데오(Montevideo) 항구까지 연결하게 될 예정임.
- 현재 볼리비아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지만 최근 브라질의 천연가스 수요 감소로 인해 다른 수출시장을 확보하려는 상황임. 따라서 동 가스관 건설로 인해 볼리비아는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에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 한편 파라과이는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과의 국경 근처에 위치한 아까라이(Acaray) 수력발전으로 얻은 전력을 우루과이에 판매할 수 있기를 기대함.

(Los Tiempos, 2010.8.16)

#### □ 콜롬비아와 칠레, 바이오연료 사용 증가 예상

- Elzbieta Bochno 콜롬비아 농업부 장관에 따르면, 경유에 바이오디젤 10%를 혼합하는 조치를 '10년 말에 시행할 예정이며, '11년 말에는 휘발유에 에탄올 10% 혼합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임.
- 콜롬비아는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비율제도, 자유무역지대, 농업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 등을 통해 바이오연료 산업을 지원하고 있음.
- Ricardo Raineri 칠레 에너지부 장관은 '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하는 데 바이오연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칠레는 경유에 바이오디젤 5%를 혼합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칠레의 경제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기구인 Corfo(Corporación de Fomento de la Producción de Chile)를 통해 바이오연료 개발 계획을 지원하고 있음.

(BNamericas, 2010.8.17)

#### □ 이란, 첫 원자로 가동 준비 중

- 이란은 다음 주 첫 원자로 가동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함.
- 이란의 원자력 최고책임자인 Ali Akbar Salehi는 이란 남부지역에 위치



- 한 Bushehr 발전소의 발전연료를 주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함.
- 그는 Bushehr 발전소 가동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사찰관을 초대하였다고 밝힘.
  - Bushehr 발전소를 건설한 러시아 측도 다음 주에 원자로에 연료를 주입할 것이라고 확인함.
  - 이에 대해 미국 백악관의 Robert Gibbs 대변인은 러시아가 이란 원자로 건설을 수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란은 우라늄 농축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함.

(Daily Telegraph, 2010.8.16)

## EUROPE & AFRICA

### □ 폴란드, 상반기 화력발전량 2.5% 증가

- 올해 상반기, CO<sub>2</sub> 배출이 동반되는 폴란드의 화력발전량이 작년 동기대비 증가함.
  - 폴란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의 화력발전량은 작년 상반기에 비해 2.5%인 1,780GWh 증가한 71,661GWh를 기록함.
  - 화력발전량의 증가로 인해 CO<sub>2</sub> 배출 또한 증가하여 작년보다 많은 EU 배출권을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 '09년, 폴란드의 전력 및 난방분야는 총 151.3백만 톤의 CO<sub>2</sub>를 배출하여 해당된 배출량을 1.5백만 톤가량 초과하였음.
  - 폴란드의 전력산업은 올해 총 157백만 톤의 CO<sub>2</sub>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됨.
- 상반기에 갈탄을 사용한 화력발전량이 2.7%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CO<sub>2</sub> 배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무연탄을 사용한 화력발전에 비해 CO<sub>2</sub> 배출량이 많은 갈탄화력발전은 폴란드 발전의 30%를 차지함.



- 비록 갈탄화력발전량이 감소하였지만 무연탄화력발전량이 5.1% 상승한 42,525GWh를 기록함에 따라 갈탄화력발전량의 감소분이 상쇄되었음.
- 올해 상반기, 탄소배출이 없는 발전을 포함한 폴란드의 총 전력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3.6% 상승한 77,876GWh를 기록함.
- 경제위기로 인해 '09년 폴란드의 전력 생산은 전년대비 2.2% 하락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발전량이 상승함.
- 폴란드의 에너지분야는 EU의 탄소배출 허용량의 7.6%를 차지함.

(Point Carbon, 2010.8.16)

#### □ 폴란드, 한국과 원자력 협정에 서명

- 8월 13일, 폴란드와 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인 사용을 위한 협력 각서를 체결함 .
- 폴란드의 경제부 차관인 Hanna Trojanowska와 이준재 주 폴란드 대사가 본 협정에 서명함.
- 본 협정을 통해 폴란드의 기술관련 기관이나 대학들이 한국의 원자력 산업 기관들과 협력채널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며 관련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Hanna Trojanowska 차관이 언급함.
- 폴란드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타 원자력 보유 국가들과 협력협정에 서명한 바 있음.

(BBC Monitoring, 2010.8.16)

#### □ 프랑스, 1990~'07년 CO<sub>2</sub> 배출량 감축 실패

- 프랑스는 지난 20여 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CO<sub>2</sub> 배출량 감축에 실패했다고 프랑스 생태·에너지 지속가능개발부(Ministry of Ecology, Energ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ea)가 8월 12일 발표함.
- 프랑스의 총 CO<sub>2</sub> 배출량은 1990년 438백만 톤에서 '07년 439백만 톤으로 약간 증가하였음.



- 프랑스는 1990~'07년의 기간 동안 에너지효율성은 증가하였지만, 에너지 생산과 소비 증가가 커서 에너지효율 향상으로 인한 CO<sub>2</sub> 배출량 감축을 상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산업부문의 CO<sub>2</sub> 배출량은 10% 감소하였지만, 서비스 및 수송 부문의 CO<sub>2</sub> 배출량은 각각 25%, 35% 증가하였음.
- 프랑스 CO<sub>2</sub> 배출량의 1/3을 차지하는 가정부문의 자동차 및 난방으로 인한 배출량도 역시 증가하였음.
- Michele Pappalardo 프랑스 생태·에너지 지속가능개발부 장관은 1990~'07년의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이 제로였다면, CO<sub>2</sub> 배출량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프랑스는 에너지부문에서 EU 타국가들보다 CO<sub>2</sub> 배출량 감축량이 높는데, 이는 전력 생산의 85%가량을 원자력에 의존하기 때문임.

(AFP, 2010.8.12)

#### □ 프랑스, '14년까지 재생에너지 기술에 1.35십억 유로 지원

- 프랑스 정부는 '14년까지 재생에너지 투자 프로그램에 1.35십억 유로의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함.
  - 동 프로그램은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이 계획하였으며, 태양에너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탄소포집 및 저장, 그린화학 분야인 바이오연료 개발을 포함한 에너지부문을 지원할 예정임. 450백만 유로는 보조금으로 할당되며, 900백만 유로는 최첨단 기술 프로젝트에 저리 융자로 제공될 예정임.
  - 상기 지원은 연구, 상업화 전의 실험, 기술 테스트의 3단계 과정에 주력하며, 190백만 유로는 '10년 말에 할당될 예정이며, 이후 4년 동안 매년 290백만 유로가 배정될 예정임.
- 프랑스 정부는 상기 프로그램을 위해 민간부문으로부터 약 2십억 유로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프랑스는 '08년 첫 번째 환경법안인 Grenelle 1에서 미래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수송, 에너지, 주거부문에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09년 6월 승인된 두 번째 환경법안인 Grenelle 2에서 수송부문부터 농업, 폐기물, 에너지부문에 이르는 분야에 투자하는 데 주력함.

(Bloomberg, 2010.8.12)

## □ 독일, 화력발전용 석탄에 과세 고려

- 독일은 많은 논란이 있는 에너지 대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경우 잃게 되는 세입(revenue)을 만회하기 위해 화력발전소에 사용하는 석탄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동 세금 부과는 '11~'12년 2년간 제한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에너지 기업에 의해 지불될 새로운 세금으로 인해 '11년 410백만 유로, '12년 710백만 유로의 추가 세입이 예상됨.
- 지난 7월, 독일 정부는 에너지 대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조치를 축소시킴으로써 '11년 1십억 유로, '12년 1.5십억 유로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해당 에너지 기업들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체의 거센 반발이 있었음.

(Reuters, 2010.8.11)



## 1. 미국, 비용효율적인 CCS 보급 방안 발표

### □ 요약

-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직속 CCS 태스크포스는 8월 12일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CCS를 10년 내에 비용효율적으로 광범위하게 보급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권고안을 제시하였음.

### □ 주요 내용

- 미국 에너지부(DOE)와 환경보호청(EPA)이 주도하는 CCS 태스크포스는 10년 안에 CCS를 광범위하고 비용효율적으로 보급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관한 보고서 “Report of the Interagency Task Force on Carbon Capture and Storage”를 8월 12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함.
  - CCS는 발전소와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 응축, 이동시켜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기술임.
  - CCS와 같은 청정석탄기술의 신속한 개발과 사용을 통해 미국은 세계 청정에너지 경쟁을 선도할 수 있을 것임.
  - 동 보고서는 석탄 등 화석에너지원의 사용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CCS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 상기 태스크포스는 10년 안에 대규모의 비용효율적인 CCS 보급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 발족하였으며, '16년까지 5~10개의 상용화 시범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임.
  - 청정석탄기술은 미국 정부의 청정에너지 관련 목표 달성, 일자리 창출, 탄소배출량 감축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
  - 이미 CCS부문에 대한 미국정부의 투자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민간 투자 역시 정부 투자규모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음.
  - DOE는 현재 \$4십억의 연방기금을 조성해 여러 개의 CCS 시범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민간부문 투자액은 \$7십억 이상), 이는 첨단 CCS



- 기술이 10년 이내에 광범위하게 보급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임.
- EPA 역시 CCS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초기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CCS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함.
  - 오바마 대통령은 태스크포스 설립 당시 주지사들과의 자리에서, 만일 미국이 석탄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미래에도 에너지공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동 보고서는 CCS 보급을 가로막는 금융, 기술, 제도, 사회적 요소 및 CCS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14개 연방기관 및 정부부처, 수백 명의 이해관계자 및 CCS 전문가로부터 정보와 의견을 수렴해 작성되었음.
- 또한, 기존의 연방당국의 역할과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방안, 추가적으로 연방당국의 개입이 필요한 부문이 있는지 분석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CCS기술 보급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아님.
- CCS를 비용효율적이고 광범위하게 보급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는 것임.
  - 미국은 연방 차원의 추가적인 대책과 조정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향후 10년 내에 CCS를 보급하는 단기목표를 달성하고, '16년까지 5~10개의 상용화 CCS 시범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를 위해, 상설 연방기관 라운드테이블과 전문위원회를 설립해 CCS 시범사업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추가적 연구와 리스크관리를 할 것을 권고함.
- CO<sub>2</sub> 저장부지가 폐쇄되고 난 이후의 경우와 같은 장기적인 법적 책임과 관련해, 정부가 무제한적인 책임을 지는 방안은 적절한 대안은 아님. 동 보고서는 대신 현행법 틀에 의존, 보험 요구 한도 제한, 신탁펀드 조성, 연방정부에 조건부로 법적 책임 이전 등 4개의 접근방식을 권고함.



- 또한, DOE와 EPA로 하여금 기타 연방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초기 상용화 CCS 시범프로젝트의 실행과정을 꾸준히 관찰하고, 현행법상의 수정이 필요한 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권고함.
- 동 보고서는 CCS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임을 알리기 위해 일반 대중과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할 것을 권고함.
  - CCS 사업기간 동안 계속해서 제공되는 정보, 교육, 홍보 노력을 통해 대중은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사업자 사이에는 신뢰를 쌓을 수 있음.
- 다수의 전문가들은 저탄소에너지원의 사용을 늘리고 효율성을 제고해 탄소 배출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CCS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함.
  - CCS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 세계적으로 감축시킬 수는 있겠지만, CCS의 비용효율적인 보급은 탄소배출상한선 지정과 같은 국가 정책의 틀이 갖춰지고 경제적인 가격으로 기술이 상용화 될 때 가능할 것임.

(DOE, 2010.8.12)

## 2. 세계 우라늄 시장 불안정성 상존

### □ 요약

- 인도와 중국이 원자로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원자로 건설 시장의 호황으로 우라늄 개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라늄 시장에는 고위험이 존재함.
  - 이차 공급원이 우라늄 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의 원자로 사고는 신규 원자로 건설사업의 중단으로 이어짐에 따라, 우라늄 가격이 폭락하게 됨.
  - 우라늄 구매자의 경우, 우라늄 광산의 사고가 우라늄 가격의 폭등으로 연결되는 어려움이 있음.



## □ 주요 내용

- 우라늄 가격은 이차 공급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음.
  - '05년 5월 \$29.50/lb이었던 우라늄 가격이 우라늄 광산침수가 발생함으로 인해 '07년 6월 \$136/lb로 치솟았음.
    - ※ 이차공급원: 채굴이 아닌 기타 방법으로 우라늄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함. 이미 사용된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생산한 재생우라늄, 군대에서 사용하기 위해 생산된 무기급 연료를 재활용하는 것 등이 포함됨.
- '07년 6월 최고치를 기록한 우라늄 가격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개발 기업들은 향후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우라늄 채굴과정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한다면 시장이 크게 요동할 수 있음.
  - '06년 캐나다 Cigar Lake 우라늄 광산에서 발생했던 규모의 광산침수가 또 발생한다면 우라늄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음.
  - 반면, 1979년 발생한 Three Mile Island 원자로 사고와 같은 원자로 사고가 재발한다면 각국 정부들이 신규 원자로 건설사업을 취소하게 되어 우라늄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도 있음.
    - ※ Three Mile Island 원자로 사고: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시 부근에 있는 트리마일섬(Three Mile Island) 핵발전소 원자로의 노심이 부분적으로 용해되어 낮은 수준의 방사능물질이 방출된 사고.
  - 타 에너지산업과 마찬가지로 우라늄 개발사업의 성공여부는 불확실함.
- 최근 몇 년간 세계 우라늄 시장이 겪은 가장 큰 변화는 카자흐스탄 시장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석유 생산국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동시에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로 합의한 카자흐스탄은 현재 세계 최대의 우라늄 생산국으로 성장함.
  -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생산은 1999년 1,367톤에서 '08년 8,521톤으로 증가하였고 '09년에는 무려 13,820톤으로 급격히 증가함.
  - 투자자문회사인 Resource Capital Research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생산은 내년 30% 증가할 것이며 '18년에는 생산량이 '09년의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아프리카 국가들도 우라늄 생산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음.
  - '09년, 니제르는 3,243톤, 나미비아는 4,626톤, 남아공은 563톤의 우라늄을 생산하였음.
  - 나미비아는 올해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이미 세계 3대, 12대 규모의 우라늄 광산을 보유하고 있음.
  - 올해 5월, 러시아의 Rosatom은 나미비아 우라늄 탐사에 \$1십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일본의 Itochu는 올해 7월 \$170백만을 투자하여 Rossing South 광산의 개발을 총괄하는 Extract Resources의 지분 10.3%를 인수함.
  - Rossing South 광산은 '13년부터 연간 5.8천 톤의 우라늄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어 나미비아는 세계 최대의 우라늄 생산국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됨.
- Resource Capital Research는 \$40/lb의 우라늄 가격이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의 우라늄 구매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우라늄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다고 밝힘.
  - 우라늄 가격이 낮아진 현재, 중국은 향후 가동할 원자료를 위하여 우라늄 비축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20년까지 원자력 발전설비를 현재 대비 9배인 85GW로 증대시킬 계획이며, 이 설비능력은 현재의 전 세계 우라늄 공급량의 40%에 해당하는 연간 20천 톤의 우라늄을 필요로 하는 것임.
- 중국과 인도 등의 우라늄 수요 증가가 우라늄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10년, 세계 전력산업의 우라늄 수요는 68,646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세계원자력협회(World Nuclear Association)에 따르면 '10년 7월 1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상업용 원자로의 수는 439개로서, 총 발전능력은 374.8GW임.
  - 그러나 동아시아, 남아시아 국가들을 선두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59개



의 원자로(총 발전능력 60GW)가 현재 건설 중이며, 149개의 원자로(총 발전능력 163GW) 건설계획이 진행 중이고, 344개의 원자로(총 발전능력 365GW) 건설이 제안되었음.

- 이로 인해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은 향후 15년 이내에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급격한 우라늄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것임.
- 러시아 또한 원자력 및 우라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러시아는 전 세계 원자로시장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09년 12월, 러시아는 인도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연료공급 및 원자로 건설 계약에 서명함.
  - 러시아 기업인 ARMZ는 세계 5대 우라늄 공급 기업이며, ARMZ가 보유한 우라늄 광산은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짐.
  - ARMZ는 올해 6월 세계 10대 우라늄 개발기업인 캐나다의 Uranium One의 지분 51%를 인수하기 위해 입찰에 응하였으며, 올해 말에 응찰 관련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됨.
- 군용 무기급 우라늄과 무기급 플루토늄 또한 원자로 연료로써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1994년 합의된 미국과 러시아 간의 “Megatons to Megawatts” 협정 하에서, 양국은 군비축소의 일환으로 군용 우라늄을 발전용 연료로 전환하는데 합의하였음.
  - 무기급 우라늄은 발전용 우라늄에 비해 고농축 연료이기 때문에 기존 농축도의 4%대로 희석되어 발전에 사용됨.
  - 세계원자력협회는 1999년부터 '13년까지 연간 30톤의 군용 우라늄(채굴된 우라늄 10.6천 톤에 해당)이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며, 이는 세계 원자로 연료 수요의 13%에 해당한다고 밝힘.
- 주요 우라늄 공급원의 등장과 세계 우라늄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



라늄의 원활한 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 세계 우라늄 생산지는 소수의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우라늄 공급은 정치적, 환경적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
- 최근 몇 년간 다수의 광산이 심각한 침수로 피해를 입음. '06년 10월 Cigar Lake 광산의 침수피해로 인해 '06년 말까지 전 세계 우라늄 가격은 60% 상승함.
- 또한 '07년 3월 호주의 광산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우라늄 공급부족 상황이 악화됨.
- Cigar Lake 광산에서 '08년 또 다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고 올해 2월이 되어서야 침수 피해가 복구됨.
- Cigar Lake의 침수피해는 우라늄산업 전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수의 광산이 전 세계 우라늄 공급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지를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음.

(Energy Economist, 2010.8)



## 부진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세계 석유수요 증가세 지속

### □ 요약

- 최근 세계 주요국의 경기지표가 연초와 달리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전문가들은 현 시기를 세계 경기의 회복이나 또 다른 침체기냐의 갈림길로 여기고 있음.
  - 6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크게 증가함.
  - 유럽과 중국, 일본의 제조업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증시는 하락세를 나타냄.
- 그러나 세계 경기회복 지연을 나타내는 부진한 경기지표에도 불구하고 세계 석유수요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7월 기준 세계 석유수요는 전월대비 0.25백만b/d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2.22백만b/d 증가함.
- 시장 분석가들은 최근 발표되는 주요국 경기지표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으며, 세계 경기회복의 지속여부는 석유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임.

### □ 주요 내용

- 7월 기준 세계 석유수요는 86.82백만b/d로 전월대비 약 0.25백만b/d, 전년 동기대비 2.22백만b/d 증가함.
  - 세계 석유수요 증가의 약 75%는 비OECD 국가의 석유수요 증가이며, OECD 국가 역시 유럽 및 일본의 석유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대비 약 0.5백만b/d 증가함.
- 최근 세계 주요국의 경기지표가 연초와 달리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시장 분석가들은 현 시기를 세계 경기의 회복이나 또 다른 침체기냐의 갈림길로 여기고 있음.
  - 미 상부부가 발표한 6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전월에 비해 19% 증가한 49.9십억 달러를 기록, 20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함.



- 8월 첫째 주 기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는 484천 건을 기록, 지난 2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미국의 10대 청년 실업률은 약 2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7월 기준 중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구매자관리지수는 17개월래 가장 저조한 수치를 기록, 3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일본의 2/4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 증가, 전년 동기대비 0.4% 증가에 그침.

세계 주요국의 석유 수요 추이

단위: 천b/d

지역	2010년		2009년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7월*	6월	7월	
북미	23,815	23,795	23,210	2.6%
미국	19,136	19,100	18,626	2.7%
서유럽	14,540	14,553	14,687	-1.0%
EU-15	12,286	12,359	12,450	-1.3%
태평양	7,062	7,085	7,116	-0.8%
일본	3,885	3,819	4,000	-2.9%
<b>OECD-30</b>	<b>45,418</b>	<b>45,433</b>	<b>45,013</b>	<b>0.9%</b>
브라질	2,797	2,545	2,661	5.1%
인도	3,251	3,318	2,857	13.8%
중국	9,294	9,404	8,897	4.5%
중동	7,815	7,420	7,402	5.6%
<b>비OECD</b>	<b>41,405</b>	<b>41,141</b>	<b>39,593</b>	<b>4.6%</b>
<b>세계 전체</b>	<b>86,823</b>	<b>86,574</b>	<b>84,606</b>	<b>2.6%</b>

주: \*는 추정치임.

- 미국의 7월 석유수요는 전년 동기대비 0.5백만b/d 증가했으나 여전히 '07년에 비해서는 약 1.6백만b/d 감소한 수치로 석유수요의 침체는 장기화 되고 있음.
- 미국의 2/4분기 석유수요는 전월 추정치 대비 0.3백b/d이상 하향 조정된 19백만b/d로 당초 추정치 보다 경유 및 난방유의 소비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남.
- 일본 및 유럽의 경우 제조업 경기의 침체가 석유수요에 그대로 반영되어 감소세를 지속함.
- 7월 기준 일본의 석유수요는 3.9백만b/d로 전년 동기대비 2.9% 감소하



여 2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EU-15의 석유수요는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함.

- 중국의 7월 석유수요는 전년 동기대비 0.4백만b/d 증가하였으나 전월에 비해 0.1백만b/d 감소하며 최근 감소세를 지속함.
  - 석유수요 감소의 대부분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송용 석유제품 소비 감소에 기인함.
- 한편, 브라질과 인도 및 중동의 석유수요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3/4분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수송부문의 경유소비 증대와 여름철 냉방용 전력수요 증가가 석유수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Oil Market Intelligence, 2010.8)